OVERWATCH
폭력의 계율
BRANDON EASTON 단편 소설

스토리
BRANDON EASTON

편집
CHLOE FRABONI

세계관 자문
MADI BUCKINGHAM, SEAN COPELAND

크리에이티브 자문
JEFF CHAMBERLAIN, JASON HILL, GEORGE KRSTIC,
ANDREW ROBINSON, ARNOLD TSANG

프로듀서
BRIANNE MESSINA

디자인
BETSY PETERSCHMIDT

일러스트
ARNOLD TSANG

DUSK 리퍼 스킨 및 오리지널 콘셉트
DAVID KANG

DUSK 리퍼 스킨 모델
KEOS MASONS

DUSK 리퍼 무기 모델
DRAGONFLY

리퍼 오리지널 모델
HAI PHAN

폭력의 계율

레예스의 귀에서 맥박이 뛰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침묵의 순간에, 그의 분노는 뜨겁게 끓어올랐다. 예전에는 조종사가 지각을 한다거나, 임무 브리핑이 누락되는 일들로 발생하는 작은 성가심은 그저 가벼운 웃음과 함께 농담 같은 뾰족한 말을 던지는 정도로 마무리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성가신 감정이 소용돌이처럼 확대되고, 그의 분노는 어딘가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었다. 그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레예스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총알을 한 발 한 발 발사할 때마다, 그의 육신이 한 줄기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질 때마다, 그 다리 위를 한 걸음씩 내딛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힘의 대가였다.

레예스는 리퍼 가면을 손에 들고, 거기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봤다. 그 가면은 잭오랜턴을 닮은 하얀 얼굴에 빨간 눈구멍을 좁게 뚫어 둔 특수 호흡 장치였다. 이런 은신 임무에서는 HUD와 가스 필터, GPS에 연결된 전방향 통신 시스템이 필요했다. 모든 면에서, 이 가면은 유용했다. 하지만 가면을 쓰는 데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사실상 위험 요소였다. 세상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계속 그렇게 생각해야 했다. 아무에게도 진실이 알려져서는 안 됐다. *특히 그녀에게만큼은.*

수많은 장면이 레예스의 머릿속에 쏟아져 들어왔다. 기쁨과 만족감, 발견, 사랑이 가득한

찰나의 순간들이 마구 뒤섞인 만화경이었다. 콘에서 녹아내려 긁힌 상처로 가득한 주먹에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 그녀의 머리카락. 그녀가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던 때.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도 그런 미소를 지어 줄까? 이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레예스가 끊임없이 억누르려 하는 곳으로부터 분노의 샘이 끓어올랐다. *그녀가 나에게 그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뒤틀려 온 그의 육신처럼, 분노가 소용돌이치며 겉잡을 수 없이 커져 갔다. 잭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남겨진 상처는 모이라가 그에게 주입한 독이나 그 전에 미국 정부에서 했던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도 그 액체는 혈관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가브리엘 레예스의 존재를 분자 단위로 지워내고 있었다.

폭발이 오버워치의 스위스 본부를 산산이 조각낸 지 거의 일 년이 지났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점화 순간의 섬광과 끔찍한 열기, 공포로 휘둥그레진 잭의 두 눈이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만이 남았다.

레예스가 정신을 차리자 차가운 두 눈이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모이라 오디오런. 그가 블랙워치에 영입했던 미치광이 유전학자였다. 그 선택이 의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결과를 초래했다. 레예스가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가는 사이, 모이라는 그의 육체에 실험용 화학 물질을 잔뜩 주입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처음 그에게 육체를 변형시키는 능력을 주었던 물질을 다채롭게 변형시킨 성분이었다. 그녀는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이라는 과학이라는 멋진 논리를 앞세워 속내를 감추고 있었지만, 레예스는 그녀가 무력한 실험체를 가지고 놀 때 더 큰 재미를 느낀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레예스는 들것에 누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그의 육체가 매끈하게 녹아내린 금속으로 바뀌고, 다양한 물질 상태를 오가고 있는 듯한 감각이었다. 한 순간 그는 육체와 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음 순간 그는 검은 연기 한 줌이 되어, 자신을 이루는 분자를 낱낱이 인식하면서도 그 통제력을 잃을까 공포에 질려 있었다. 레예스는 자기 팔을 바라봤다. 흑단 같은 안개가 희미하게 팔을 닮은 형태로 아른거리고 있었다. 마음 속으로는 공포의 비명을 질렀지만, 두뇌 한쪽 구석에서는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던가? 하지만 그의 힘은 커져만 갔다. 지금의 레예스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었다. 이전 삶의 기억은 그가 피로 써내려 갈 복수극의 비극적인 서막처럼 느껴졌다.

그때, 레예스는 퍼뜩 잡념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탈론 수송선이 착륙하기를 기다렸다. 리퍼 가면이 그의 끔찍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는 천천히 가면을 내려 얼굴을 덮었다. 만족스러운 찰칵 소리와 함께, 가면은 목을 둘러싼 장갑 두건에 연결되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이번에는 서늘하고 거친 호흡이 뒤따랐다.

"강하 지점까지 1분 30초 남았습니다." 수송선 조종사가 말했다.

레예스는 수송선 통신 설비를 따라 줄지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LED 제어판 위에서 능숙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둠피스트의 임무 브리핑을 스크롤했다.

잠시 후, 군사 시설인 블랙 사이트에 착륙하게 된다. 그 안에는 탈론이 작전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시설에서, 그 남자를 반드시 산 채로 데려와야 한다. 이번 임무에서는 한 팀원이 아주 중요한 지원군이 되어 줄 테지만, 절대 시야에서 놓치지 마라. 내가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는 네가 내 숨겨진 손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는 아칸데의 감금실 앞에서, 갇힌 그의 공허한 표정을 마주 보며 쓴웃음을 짓던 때를 떠올렸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은 그의 두 눈은 히죽거리는 감금자들을 너머, 감옥의 경화광 벽 너머 먼 곳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레예스는 옹졸하거나 불필요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자 중 한 명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 갇혀 있는 데 일조했단 사실에 일말의 만족감을 느꼈다.

"새로운 거처가 마음에 드나?" 레예스가 물었다.

아칸데는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대화에서 벗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멍하니 두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했다. "역경은 기회를 불러오지...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강해진다."

레예스는 이를 악물었고, 터져 나오는 욕설을 애써 참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칸데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레예스의 몸짓을 훑어봤다.

"권력형 비리와 내란 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체제의 무능함에 좌절한 건가." 아칸데의 말투는 질문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레예스는 비웃음으로 응답했다.

아칸데는 자기 패가 게임을 끝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포커 선수처럼 절제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우리는 군인이다. 너도 이런 거짓 평화에 속지는 않겠지. 하지만 걱정 마라. 난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거기가 네가 있을 곳이다." 레예스가 딱 잘라 말했다.

"네 생각에는 그럴지도 모르지. 나는 이 세계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첫 번째 사람도, 마지막 사람도 아니야. 그저 이 세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깨달은 수많은 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어떤 체제도 완벽하지 않다. 체제의 문제점을 깨닫는 데 테러를 자행할 필요는 없지."

아칸데는 그 말을 존중하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선을 돌렸다.

"진짜 악당은 감옥 안을 볼 일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아칸데는 말했다. "너는 경찰관이고 또 군인이었다. 일생의 상당 부분을 정의를 추구하며 살았지. 하지만 그 정의를 얼마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지만 보았고."

"나를 사이비 교주나 찾아 헤매는 길 잃은 멍청이로 보고 있군." 레예스는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날 조종하려 하지 마라. *네가 여기 갇힌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너도 마찬가지다, 레예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머물렀다. 악수를 하거나 총을 뽑아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보지." 아칸데가 말했다. "네가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나? 경찰관으로서? 군인으로서? 오버워치 요원으로서? 네 행동이 정의의 저울을 움직였을까?"

레예스는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의 가슴 속 무언가가 흘러 나오려는 말을 막았다. 경찰관으로서, 레예스는 수백 명의 범죄자들을 체포했지만, 거리의 범죄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군인으로서, 그는 잔혹한 독재 정권을 전복시켰지만 결국에는 거대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익 극대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을 똑같이 학대할 뿐이었다. 수많은 동료들과 달리, 레예스는 불의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믿었다. 마약상들을 아무리 체포한들, 조직을 해체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독재자로부터 한 국가를 구원한들, 애초에 그를 권력에 올려 놓은 존재를 찾아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레예스는 돈 많은 엘리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고도 처벌을 피하는 모습을 몇 번이고 보았다. 체제가 사람들에게 정의와 구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아칸데는 말을 이었다. 경건하고 적의 없는 목소리였다. "넌 쉬지 않고 일하고, 자기 몸을 뒤틀면서까지 보편적인 선을 추구했다. 그런데 그 끝에 뭐가 남았지? 이건 체제의 결함이 아니다. 이 세계는 분열을 초래하는 범죄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묻겠다. 네가 진짜로 보호하고 있는 건 *누구냐?* 내게서 인류를 보호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 범죄자들을 내 정의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냐?"

레예스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칸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이야기했다. 국제 연합도, 인터폴도, 미국의 사법 제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오버워치도 마찬가지였다. 레예스는 오버워치와 함께 비밀 타격팀을 구성하여, 체제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정을 바로잡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복수의 씨앗이 레예스의 정신에 심어졌다. 그 씨앗이 싹을 틔워 리퍼를 만들어 냈다. 명예라는 진부한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폭력의 계율만을 신봉하는 유령... 지금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이는 건 오직 그것뿐이었다.

"오디오 신호를 가면의 통신 시스템으로 전달합니다." 수송선 조종사의 목소리가 레예스를 둘러싼 기억의 장막을 걷어냈다.

레예스의 귀에서 공허하게 삐빅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보안 신호가 연결되었음을 알렸다. "시작해."

레예스의 HUD가 깜빡였다. 반짝이는 보라색 해골 문양이 탈론 휘장을 대체했다. "올라, 콤파드레." 목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다. "전면전에 나서 볼까?"

레예스는 수송선이 지상에 착륙하면서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출구의 어두운 경사로를 내려가며 팀원인 솜브라를 찾았다. 그녀가 은신을 해제하자,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레예스는 통신 장치를 끄고는 솜브라를 향해 돌아섰다. "잠입 구출 작전이겠지."

"그래. 치고 빠지기라고."

레예스는 솜브라를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그녀의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체크리스트를 완성했다.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그녀의 의상은 눈에 너무 띄었다. 심지어 기관권총마저 요란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어느 모로 봐도 "잠입"과 어울리지 않았다.

"전에 이런 구출 작전에 참여한 적 있었나?" 레예스가 물었다.

솜브라는 경화광 화면을 꺼내며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조롱과 불신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는 소리 같았다. "걱정하는 거야, 게이브? 날 믿어. 탈론의 묵은 비밀도 가르쳐 줄게. 이건 군사 시설이 아니야, 군인 아저씨. 뭐, 조만간 알게 되겠지만."

"임무 브리핑은 검토했나?"

솜브라는 경화광 화면을 그에게 던졌다. "이거 말이야? 난 내가 직접 조사하는 쪽을 선호해서 말이지."

레예스는 분노가 쌓이는 것을 느끼며 샷건의 탄약을 확인했다. "임무 브리핑을 따라야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

솜브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화면을 닫았다.

레예스는 문으로 향했다. "전투 작전 준비 완료."

솜브라는 싱긋 웃으며 권총을 이마로 들어올려 도발하듯 경례했다.

두 사람이 언덕에 올라서자, 보름달 빛에 소나무와 덤불이 사방으로 수 킬로미터 뻗어 있는 드넓은 풍경이 드러났다. 언덕 위 평지는 특색 없는 베이지색 단층 건물이 말굽 모양으로 줄지어 있는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기," 솜브라가 말했다. "우리 목표가 있어."

레예스는 말없이 그 지역을 살폈다. 그의 눈은 지형에 스며든 방어 수단을 찾았다. 이전 삶에서 레예스는 소위 블랙 사이트라고 부르는 장소를 수도 없이 침투해 보았고, 그런 곳에서 감시 및 조기 경보 장치를 감추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묘한 위치에 꽂힌 깃대나 사막 환경에 비해 지나치게 생기 있어 보이고 비대칭으로 자라난 수풀 같은 것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놈들의 탐지망은 얕다. 날 따라서 계곡 아래로 와라. 그 다음에는—" 레예스가 고개를 돌리자 솜브라는 위치변환기를 계곡 너머로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진 후 다시 반대쪽 언덕 위에 나타났다. 레예스는 솜브라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지만, 이내 언짢은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가면 아래에서, 레예스는 이를 갈며 둠피스트의 경고를 떠올렸다. *절대 시야에서 놓치지 마라.*

레예스는 솜브라 옆의 공간에 집중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피부가 근질거렸다. 몸은 연기로 분해되었고, 솜브라 옆에서 다시 형성되었다.

솜브라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나 보고 싶었어?"

레예스는 솜브라가 자기 능력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걸 보며, 이미 그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저 자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모든 게 그녀의 과도한 자신감이 초래한 하찮은 놀이에 불과했다.

둠피스트는 그에게도 솜브라의 능력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와 더불어 그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작전 요원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었다. 하지만 레예스는 그녀가 이번 임무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잘 좀 따라와 봐, 아미고." 솜브라가 말했다. "네가 그냥 고용된 용병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긴장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둘로 갈라지는 게 어때? 난 목표를 추적할 테니까, 넌 경비병들을 처리하—"

"갈라지진 않는다." 레예스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솜브라는 한숨을 쉬었다. "지금 뭐 펜타곤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잖아. 저 녀석들의 가장 가까운 지원군은 4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 여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게다가 내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여기에는 보급 트럭도 자주 없어. 경비 인원도 별로 없지. 예산이 삭감되면서 30명까지 줄어들었더라고. 게다가 누군가 침입할 거라곤 예상도 못하고 있어. 아무리 강한 무기를 사용해도 탈론 방어구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는다고. 블랙 사이트라는 건 애초에 그 지역 보안관도 지켜 주지 못하는 곳이야.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잖아."

"함께 움직인다. 그래야 위협을 제거하기가 쉬워."

"알겠습니다, *대장*." 솜브라는 눈썹을 추켜올리며 말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기, 네 자료를 읽어 봤는데, 자아도취에 빠진 것처럼 보이진 않던데."

레예스는 솜브라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아칸데가 경고한 것을 알고 있는 건가?

그의 얼굴에 분노가 피어나는 것을 보며, 솜브라는 허리에 손을 얹었다. "진정해, 아미고. 아칸데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야. 오늘은 우리 둘 목표가 같으니까." 솜브라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을 가리켰다. "저기로 들어가는 거야. 슬쩍 들어갔다가, 슬쩍 나오기만 하면 돼. 쉽지?"

레예스가 그녀가 가리킨 지점을 바라보는 사이, 솜브라는 반짝 하고 사라졌다.

오랜 군사 훈련을 거친 레예스에게는 위험이 도래한 순간을 알려 주는 육감이 있었다. 지금 내면의 경보 장치가 모든 주파수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임무 그 자체가 아니라, 탈론의 체계(혹은 체계의 부재)가 찜찜했던 것이다. 그도 마음이 맞는 범죄자들이 하나로 뭉친 탈론의 느슨한 문화가 기본적인 군사적 체계를 따를 거라고 믿을 정도로 순진하거나 어리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솜브라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건 불편한 구석이 있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료라면 적어도 자기 뒤를 지켜 주기는 할 거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솜브라는 그에게도, 임무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칸데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 없는 것 같았다. 갑자기 탈론의 일원을 믿어도 좋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불안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다. *아칸데는 내게 솜브라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고 했어. 그렇다면 솜브라에게는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던 거지?*

"해킹 시작." 솜브라가 첫 번째 건물의 햇빛에 바랜 문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레예스가 왼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작은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요란한 경고음이 평화로운 풍경을 뒤흔들었다. 동작 감지기였다. 초짜 같은 실수를 했군. 여러 건물의 문이 동시에 미끄러져 열리고, 중장갑 경비 돌격병이 총을 앞세우고 모래투성이 계곡으로 쏟아져 나왔다.

현재로서는 솜브라가 스스로도 말했듯이 둘의 이해 관계가 일치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레예스는 각자 자기 위치로 이동하는 경비병 열 명을 셌다. 가면 아래에서, 레예스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사라졌다.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오고,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왠지 불쾌했다.

탕! 탕! 탕!

경비병들이 거칠게 지면에 쓰러졌다. 레예스는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전진했다. 단 몇 초만에 적을 모두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은연중 그 순간의 행동을 음미하고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더 그랬다.

마지막 경비병 두 명이 레예스에게 무기를 겨눴지만, 공포에 얼어붙어 있었다. 레예스는 즉시 첫 번째 경비병을 총으로 쓰러뜨렸고, 그러자 두 번째도 정신을 차렸다. 적이 탄환을 발사했고, 커다란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사이, 레예스는 연기로 변해 적의 등 뒤에서 다시 나타났다. 경비병은 헬파이어 샷건의 총구가 머리 뒤쪽을 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고, 레예스는 방아쇠를 당겼다.

레예스의 육체가 재구축되는 동안 솜브라는 박수를 쳤다. 다행히 그는 이번 전투에서 분노를 모두 태워 없앤 후였다.

"서툴군." 레예스가 말했다. "내가 뒷정리나 하려고 온 건 아니야. 그리고—"

"그리고 뭐?" 솜브라가 자기 손톱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아마추어와는 일하지 않아."

솜브라는 허리에 손을 얹고 당당한 걸음으로 레예스를 향해 몇 걸음 걸어갔다.

"들어 봐, 사벨로토도. 난 저 녀석들의 대응 시간을 알아내야 했고, 네가 주의를 끄는 동안 통신 단말기 해킹을 끝냈어. 이제 내부 네트워크도 다운됐고,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그리고 네가 거기서 놀고 있는 동안, 우리 표적의 위치까지 알아냈단 말이야."

솜브라는 제자리에서 빙글 돌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물로 들어섰다. 레예스는 가면 아래에서 조용히 투덜거리고는, 더는 존재하지 않을 줄 알았던 참을성을 끌어냈다.

솜브라는 붉은색 조명이 번쩍이는 긴 통로에 경쾌한 걸음으로 들어섰고, 레예스는 그 뒤를 따랐다. 그녀는 또 다른 단말기 포트를 해킹했고,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보안 네트워크의 일부를 비활성화했다. 잠시 후 붉은색 조명이 꺼지고, 전형적인 사무실 건물의 단조로운 백열광이 시설 전체를 비췄다.

"목표는 지하 2층에 있어.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고. 지하에서는 적의 저항이 조금 더 거셀 것 같아." 솜브라가 말했다.

"지휘 계통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는 알고 있나?" 레예스가 말했다.

"아이, 오트라 베스 노,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없네."

"진짜 전투에서, 어떤 힘도 속임수도 쓸 수 없는 곳, 적에게도 똑같이 널 죽일 기회가 있는 곳에서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다."

"난 명령 같은 건 *믿지 않아.*"

"둠피스트의 명령에 따라 여기까지 왔지 않나."

솜브라는 한숨을 쉬었다. "잘 들어, 아미고. 탈론에 들어오는 데는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너처럼 달리 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고, 탈론의 재원을 노리는 사람도 있어. 그냥 리더를 믿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있지. 둠피스트가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이상과 의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당장 내일이라도 탈론의 리더가 바뀔 수도 있겠지. 안 바뀔 수도 있고. 나는 내키면 명령을 따르지만 지금은 내키지가 않네. 콤프렌데스?"

둘이 계단을 계속 내려가는 동안 레예스는 잠자코 솜브라의 말을 곱씹었다.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는 말이었다. 그는 모이라가 재원을 노리고 여러 조직들을 이용하는 것을 본 바가 있다. 모이라는 연구 자금만 마련할 수 있다면 어느 편이든 신경 쓰지 않았다. 아칸데는 탈론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려 했다. 레예스는 거기에 끌렸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확성기이자, 가난이라는 벽을 무너뜨리는 철퇴이자, 고용인 계급의 등에 업혀 부를 축적한 혈통 좋은 엘리트의 턱을 후려치는 주먹이 되겠다는 탈론의 약속 때문이었다.

솜브라에게는 레예스는 모르는 자기만의 목적이 있는 게 분명했다. 현재로서는 솜브라가 스스로도 말했듯이 둘의 이해 관계가 일치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해 보였다. 동료의 약점을 알아낸 후, 조종하거나 처단한다.

솜브라가 계단실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난간 위로 천천히 몸을 굽혀 캄캄한 하층으로 이어지는 계단들을 바라보았다. 레예스는 바로 뒤에서 샷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어." 솜브라가 말했다.

그때 총알이 그녀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솜브라는 아래의 어둠 속에서 자동 사격 포화가 쏟아지자 큰 소리로 욕설을 뱉었다. 레예스가 앞으로 돌진하는 순간, 솜브라가 점멸하며 은신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레예스는 난간을 뛰어넘어 계단실의 트인 공간에 내려섰다. 필연적으로 자신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느낀 순간, 그는 헬파이어 총을 총집에서 빼내고 내면의 분노에 몸을 맡겼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그는 희열을 느꼈다. 음산한 웃음이 새어 나가 마스크의 통신 시스템을 통해 증폭되었다. 회전하는 레예스의 형체가 흐릿해지며 깜박거리고, 총에서 총알들이 꽃처럼 피어났다.

레예스가 한 층 한 층 떨어져 내려가는 동안 그 효과로 계단실에 있는 경비병은 모두 무력화되었다. 레예스가 하층에 쿵 내려서는 순간 솜브라가 은신을 풀고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에는 주위 정리를 해 둬." 레예스가 무기를 넣으며 말했다.

"트랜퀼로. 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 거거든."

연기가 걷히자, 육중한 금속 문이 나타났다. 옆의 벽에는 작고 네모난 콘솔이 설치되어 있었다. 솜브라가 재빨리 콘솔을 해킹했다. 문이 열리고, 철컥, 쉭 하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레예스가 솜브라를 옆으로 밀쳤다. "최루탄이다... 투사체 발사 레일건이야."

최루탄 통이 좁은 계단실 바닥으로 날아와, 빽빽하게 늘어선 벽에 튕겨 독성 가스를 뿜었다. 솜브라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갔지만, 그곳은 이미 방독면을 쓴 돌격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고 있었다. 솜브라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일종의 무기를 썼다. 보라색 빛의 파동이 일시에 커다랗게 반달을 그리며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물결치며 복도로 퍼졌다. 돌격병들이 뚝 멈춰서 소총을 휘두르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헛일이었다.

EMP군. 영리한데.

레예스는 이 틈을 타서, 경악하며 멍하니 바라볼 뿐인 돌격병들을 날려 버렸다.

레예스가 경비대를 처리하는 동안, 솜브라는 건물의 환기 계통을 해킹하여 시설 전체에서 배기 및 공기 재활용 작업을 지시했다. 웅웅거리는 전자음이 복도에 울려 퍼지고 독성 증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솜브라는 돌아서서 경비병들을 죽이고도 경계 태세를 풀지 않은 레예스를 보았다.

그는 가끔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의 자기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잊곤 했다. 군인과 경비병. 살아 있는 사람들.

잠시 동안 과거의 이미지들이 그의 머리에 흘러들었다. 아이스크림과 긁힌 주먹, 에코 파크의 거리에 늘어선 자카란다 나무들...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와 이미지를 흩어 버렸다. 네가 진짜로 보호하고 있는 건 누구냐? *내게서 인류를 보호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 범죄자들을 내 정의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건가?*

"원래 이런 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나?" 레예스가 물었다. 솜브라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엑. 그래도 난 내 앞가림은 하거든. 트라우마 때문에 머리가 멍해지는 일 없이 말이야."
솜브라가 쏘아붙인 말은 레예스의 가슴속에 있는 분노의 잉걸불에 다시 불을 지폈다. "정리 즐겁게 해, 바렌데로."

레예스는 이 어린애에게 고전적인 방식으로 교훈을 주고 싶다는 기본적인 본능과 싸웠다. 하지만 솜브라는 자기가 만든 수신호로 요란하게 손짓을 하며 레예스 앞으로 훌쩍 나아갔다. 더 많은 조롱 그리고 결례의 표시였다.

그들이 목적지에 다가가는 동안, 레예스는 이를 갈며 커다란 위험 물질 경고를 보았다. 갑작스러운 방사능 준위 변화를 주의하라는 경고였다.

솜브라가 레예스를 돌아보았다. 눈동자에서는 장난기가 춤을 추고 있었다. "아칸데가 너를 새로운 무기로 택한 이유는 알겠어."

레예스는 짜증이 어린 신음 소리로 답했다.

"요즘, 특히 우리 업계에서는 진짜 충성심 찾기가 힘들잖아. 애초에 살 수도 없는 거지만, 금값이지."

레예스는 솜브라의 속셈을 알았다. 자기를 일부러 건드리는 솜브라의 말에 폭발할 것만 같았다. 레예스는 자신을 조종하려 하는 자를 알아볼 만큼은 똑똑했지만, 솜브라의 가시 돋친 말을 무시할 만한 자제력은 없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독을 체내에 가득 주입한 채 스위스에서 나온 후로는 분노를 억제하기가 힘들었다.

"그쯤 해 두지." 레예스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냥 수다 떠는 거잖아, 솔다도. 팀원이랑 신뢰를 다지는 거라고. 기억 안 나? 오버워치에서 했었잖아."

가면에 가린 레예스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패였다. 오버워치. 듣고 싶지 않은 단어였다. 끝에 에어록이 있는 캄캄한 복도로 다가가는 동안, 분노가 다시 레예스의 핏줄에 흐르기 시작했다.

"좋아, 아미고. 우리 표적이 문 뒤에 있어." 솜브라가 말했다.

솜브라가 문의 보안 단말기를 해킹하자, 자동화된 목소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양자실에 입장하실 때는 주의해 주십시오. 중력 실험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옷자락과 무기, 개인 소지품을 단단히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가, 콤파드레." 솜브라가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말했다.

문이 열리고, 팔각형과 비슷한 형체의 생각보다 큰 연구실이 드러났다. 벽 안에는 숱한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된 컴퓨터 뱅크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케이블은 바닥 전체를 가로질러 방 중앙에 있는 단상으로 이어졌다. 레예스의 눈에는 거대 사이보그 오징어의 둥지처럼 보일 뿐이었다.

"아, 저기 있네." 솜브라가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단상 위에는 웬 고령의 남자가 제식 수류탄보다 조금 크다 싶은 두 개의 구형 장치 위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벗겨진 머리 덕분에 각진 얼굴과 날카로운 매부리코가 강조되어 보였다.

레예스가 다가가는데도 남자는 전혀 알은척을 하지 않았다. 솔직히 방에 누가 들어온 것을 알기는 하는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레예스가 바라보는 가운데, 솜브라는 컴퓨터 모니터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연구실 반대편으로 서둘러 가서 얼른 자리에 앉았다. 솜브라가 메인프레임을 해킹하자 화면이 켜졌다.

"시간의 균열은 아무도 듣지 않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지지만, 중력의 각인은 물이 소리를 왜곡하듯 시간을 왜곡한다. 그래도 종은 여전히 울리고 있다, 비록…" 남자가 누가 말을 끊기라도 한 듯 말꼬리를 흐리며 말했다.

남자는 씩 웃고는, 자신의 컴퓨터 근처에 있는 레버를 당겼다. 그는 두 개의 구형 장치를 떨어뜨렸고, 중앙의 컴퓨터가 퍼즐 상자처럼 열리면서 일정한 리듬으로 빛을 발하는 큰 구체가 나타났다.

레예스의 눈은 큰 구체에 고정되었다. "혹시…?"

남자는 장치의 표면을 살살 문질렀다. 맥동하는 빛이 그의 손가락을 비추었다.

"실험 때문에 정신이 망가졌나 보네. 그냥 조각들이 어떻게 들어맞는 건지 기억하려 하는 것뿐이야." 솜브라가 말했다. "둘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레예스는 솜브라의 말을 무시하려 애썼다. 목덜미에서 그가 익히 아는 근질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복도에는 추가 지원군이 모이고 있었다. 그가 샷건으로 내부 패널을 쏘아 망가뜨리자, 보안 프로토콜이 문을 폐쇄했다.

"너, 문을 안 잠갔잖아." 레예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잘 처리했잖아, 아미고." 솜브라는 여전히 화면에 눈길을 고정하고 표적에 관한 문건을 찾으며 말했다. "시브런 드 카위퍼 박사. 국적 네덜란드… 아, 여기 있다. 이제 아칸데가 왜 이자를 찾는지 알겠네."

문을 뒤흔드는 소리가 커졌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강철 문의 바깥쪽에 흠을 내는 에너지 광선과 중화기의 충격음이 들릴 뿐이었다. 레예스는 임무에 실패하여 도망치거나 숨어야만 했을 때 멀리서 천둥처럼 들려오던 적의 총성을 떠올렸다. 후회와 좌절의 깊은 고통이 그의 배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고, 시시각각 열기가 강해져 결국은 500도가 넘는 것처럼 느껴졌다.

레예스의 인내심이 사라졌다. 그는 지금 탈론을 위해 잡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마어마한 실력과 경험을 지닌 군인이면서 흔한 거리의 싸움꾼으로 전락해 버렸다. 아무리 멍청하더라도 방아쇠는 당길 수 있지만, 기밀 작전을 완수하려면 두뇌가 필요했다. 레예스는 문에서 충격음이 들릴 때마다 분노를 꽉 억누르던 힘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둠피스트가 나를 고용한 게 이 때문이었나?* 레예스는 의문이 들었다. *이 멍청이들 중에 일을 제대로 하는 놈이 없어서?*

과거의 삶을 몽땅 불태워 버리고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믿음이 없는 세계를 심판하기 위해 독사의 둥지로 들어섰다. 무엇을 위해서? 고작 용병 따위나 되기 위해서?

분노와 증오, 화 아래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굳건한 목소리였다. 적대적인 감정의 눈보라 속에서 꺼져 가는 연민의 잉걸불이었다.

"컴퓨터 그만 쳐다보고 표적을 잡아!" 레예스가 호통을 쳤다.

"이 부분은 내가 일을 하고 받는 대가의 일부거든. 내겐 정보가 곧 돈이란 말이지, 콤파드레. 몇 분이면 돼." 솜브라가 건방지게 말했다.

"이미 오래 있었다. 조금 후면 지원군이 들이닥칠 거야. 시간을 끌면 끌수록 탈출에 성공할 확률이 낮아진다."

"쯧쯧. 항상 너무 심각하다니까. 잭이 좀 엄하게 키웠나 봐?"

원자탄이 떨어진 듯한 충격과 함께, 레예스의 영혼 안에 있던 자제심의 벽이 산산이 조각났다. 레예스는 분기탱천하여 방을 순식간에 가로질러, 검은 증기를 뿜으며 샷건을 뽑았다.

솜브라는 욕설을 뱉으며 몸을 숙여 피했고, 총알을 맞은 컴퓨터는 백만 개의 파편으로 불타올랐다.

그 와중에도 카위퍼 박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계속 번쩍이는 구체를 부드럽게 쓰다듬을 뿐이었다.

솜브라는 레예스 쪽으로 의자를 걷어찼지만, 그는 샷건을 완벽한 타이밍에 휘둘러 의자를 튕겨 냈다. "아아, 포브레시토. 내가 말했지? 네가 여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나한테도 이유가 있어."

레예스는 그녀를 향해 위협적으로 한 발을 옮겼다.

"아마 지금 있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 에코 파크에 있는 방갈로라든가?"

솜브라는 은신했지만, 레예스는 공격 패턴 분석을 이미 끝낸 후였다. 그녀는 대상이 어느 손에 총을 들었느냐에 따라 11시 방향이나 1시 방향에 다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가 심호흡을

탈론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부도덕한 자들의 에스를 베어 버리는
검이다.
폭력의 계율이자, 리퍼를 위한
영역이다.

하고 샷건을 조준하는 순간, 솜브라의 얼굴이 깜박이며 나타났다.

"대치 상태인가." 솜브라가 총열로 레예스가 쓴 가면의 이마 부분을 툭 치며 말했다.

그들은 몇 초 동안 같은 위치에 서 있었다. 레예스의 상상이라는 물가에 뒤죽박죽이 된 기억들이 밀려왔다. 지난 삶의 다정했던 대화와 새로워진 존재의 고통스러운 의식들이 모순되게 뒤섞여 있었다.

분노와 증오, 화 아래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굳건한 목소리였다. 적대적인 감정의 눈보라 속에서 꺼져 가는 연민의 잉걸불이었다.

이건 당신이 아니야. 그의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말했다. 레예스는 눈을 감았다. 잔디로 덮인 에코 파크의 오솔길에서 미소를 짓던 마티나의 얼굴이 보였다. 날아가 버린 생일 축하 풍선을 잡으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긁힌 주먹 위로 뚝뚝 떨어지는 녹아내린 아이스크림 콘이 보였다. 절대적인 행복의 시간. 그는 마티나의 달콤한 향수 냄새와 팔에 느껴지는 여섯 살배기 아들의 무게를 붙잡으려 해 보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화약과 불에 그을린 살의 매캐한 악취였다.

당신의 옛 인생은 사라지지 않았어. 아직 그만둘 수 있어.

마티나의 얼굴이 검게 녹아 내리고 그 자리에 솜브라의 조롱이 남았다.

"자, 펜데호. 네 수는 뭐지?" 솜브라가 물었다.

레예스의 둘째 손가락이 샷건 방아쇠로 미끄러졌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충격에 대비해 뒤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디뎠다.

탕!

레예스와 솜브라는 그들의 얼굴 사이 몇 센티미터 거리를 지나가는 총알의 열기를 느꼈다. 연구실 뒤편에 있던 전원 콘솔이 폭발하며 불꽃이 쏟아져 내렸고, 예비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조명이 반딧불처럼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이거... 시시하잖아." 권태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레예스와 솜브라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순간, 위도우메이커와 탈론 요원들이 연구실에 들어섰다. 밖에는 문을 공격하던 지원 병력의 시체가 쌓여 있었다. 레예스는 복도의 소음이 멈춘 것은 진작 알아차렸지만, 적이 물러났거나 전략을 바꾸었기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다. 레예스는 시계처럼 정밀한 움직임으로 카위퍼 박사를 구속하려 달려가는 탈론 군인들을 보며, 내심 고개를 끄덕였다.

"부제떼 데 장베실." 위도우메이커가 말했다. 설령 레예스가 프랑스어를 못 알아들었다 해도, 말투만으로 이해하고 남았을 것이다. "아칸데는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약속했다. 최소한 그것 때문에는 너희에게 감사해야겠지... 하지만 이 임무는 아마추어에게 맡기기엔 너무 중요했어."

"항상 백도어는 남겨 둬야지." 솜브라가 권총을 넣으며 말했다. "네가 탈론에 대해 알아 둬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어. 둠피스트는 항상 보험을 들어 둔다는 것."

레예스는 위도우메이커와 탈론 병사들 옆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 솜브라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씩 웃었다. "잘 있어, 바렌데로."

레예스는 시설의 어두워진 복도를 따라 벽의 총알 구멍, 곰보가 된 층계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그의 눈길이 바닥에 죽어 쓰러져 있는 경비병들의 끔찍한 모습을 향했다. 그들의 눈은 결코 오지 않을 구원을 염원하고 있었다.

레예스는 발로 병사들의 시체를 뒤집어 군복에 붙은 이름표를 보았다. 도슨. 칼리. 피터슨. 샌드본. 제이콥스. 이 세상 어딘가에 이 사람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부모가 있고, 자기 전에 엄마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딸이 있고, 뒷문 옆에서 기다리는 개가 있을 터였다.

레예스는 이제 자신이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테러리스트의 행위를 지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 스스로 누누이 말했듯이, 모든 테러리스트는 자기가 영웅이라고, 독재 세력의 뿌리 깊은 타락과 탐욕에 맞서 정의의 기치를 들고 싸우는 성전사라고 믿는다. 영웅적인 행위와 정의로운 범죄를 구별하는 선이 희미하긴 했지만, 레예스는 자기 의지로 그 선을 넘었다.

레예스는 기지 앞에서 위도우메이커와 탈론 병사들이 카위퍼 박사를 다른 수송선에 태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숱한 구출 임무로 다져진 베테랑으로, 레예스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표적을

동지의 손이나 냉혹한 정의의 세계로 데려다주었다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표적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나는 운명으로 몰아넣은 적도 있었다.

그는 오늘은 어느 쪽일까 생각했다.

카위퍼 박사를 두 번째 수송선에 태운 위도우메이커와 병사들이 수송선에 탑승했고, 뒤에 남은 솜브라는 빈정대는 미소를 띠고 레예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짐짓 작별 인사를 하듯 손가락을 움직여 보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 게이브. 곧 탈론에서 자리를 잡게 될 거니까."

수송선에 들어간 솜브라는 문이 닫히는 사이 마지막 한 문장을 뱉었다. "그게 아칸데의 발밑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그 후, 수송선이 전원 지역 위를 나는 동안 레예스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탈론은 무엇이지?* 탈론은 군사 조직도, 비밀 조직도 아니었다. 오버워치도 블랙워치도 아니었다. 그나마 이런 조직에는 구닥다리일지언정 가족 의식과 상호 존중 정신이 있었다. 팀원들은 밥을 함께 먹고 경험을 함께하며, 공통의 대의를 따른다.

하지만 그건 결국 형태만 다른 조종, 동지애를 통한 유혹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탈론에 가식적인 조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적은 이기적이지만 순수했다.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단호했다. 레예스는 이제, 왠지 항상 부조리한 자들을 보호하는 "문명 세계"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았다.

국제 연합의 금지 사항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진정으로 악한 자를 처단하는 데 장애물이 없었으며,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차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외압도 없었다.

탈론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부도덕한 자들의 메스를 베어 버리는 검이다.

폭력의 계율이자, 리퍼를 위한 영역이다.

내면에서 순간적인 감정이 일었다. 꺼져 가던 연민의 잉걸불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레예스는 한쪽 손의 장갑을 벗고 가면을 들어 올렸다. 건조한 공기가 주름진 피부에 닿는 순간 그는 움찔했다.

그는 한 손가락을 얼굴에 대고 천천히 미끄러뜨렸다. 신경이 죽어 있어서 강하게 눌러야만 촉감이 느껴졌다. *그녀가 나를 봐도 이제는 몰라보겠지...* 나조차도 *나를 몰라보겠으니.* 레예스는 수송선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가면을 다시 매만졌다. 달리 고민할 것은 없었다.

그의 지난 인생은 그의 능력이 피워 내는 검은 연기 속으로 떨어져, 바닥이 없는 분노 속으로 사라졌다. 레예스는 이제 우정을 원하지 않았다. 사랑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정의에 대한 바람뿐이었다. 둠피스트가 이 망가져 버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

레예스가 주어야 하는 것은 그것뿐이다.